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확대땐 건설업 고사”

건설협회 전남도회 “채산성 악화 주범” 폐지·개선 요구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 폐지·개선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기자 간담회를 갖고, 2014년까지 유예된 최저가낙찰제 확대방안을 폐지하거나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예산절감과 건설업체의 기술력 제고 차원에서 현재 300억 원 이상 공공 공사에 적용

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로 범위를 확대·시행할 방침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대로 유보한 상태다.

전남도회 관계자는 “올해 정부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0.8% 하락 한데다 공사의 대형화 추세로 전남도 발주 공사마저 타지역 대형업체가 수주하는 등 지역건설업체는 경영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며 “채산성 악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철회하고,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2일 건설협회 광주시회도

공공건설사업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광주시회는 공공발주기관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건설업체에 일반적으로 부당 시키고 예정가격에 대한 부당한 삽입

관행을 지속해 건설업체의 위기가 더

욱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적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도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사를 확대해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달청은 4일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공사비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종사업비 검토사업(대상은 국가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500억 원 이상 토목공사, 200억 원 이상 건축공사)과 최근 2년간 발주된 공사 중 24개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최초 설계대비 13.4% 감액 조정돼 재정집행

효율성이 기여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는 “정부가 재정 효율화에만 몰매돼 건설업체의 정당한 이익 구조를 방해한 결과”라며 “출혈 경쟁을 하더라도 다음 공사를 위해 건설사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은 아는 지 모르겠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분할발주금지 조항 개선 등 제도가 바뀌어야 건설업체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중소건설업체의 실상을 잘 파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기아차는 4일 ‘착한기업지수’ 조사에서 자동차 업계 착한 기업 1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고객을 위한 ‘착한’ 할인·기부·수리·교환 등 네 가지 ‘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할인·기부·수리·교환

기아차 착한 이벤트 네가지

착한기업 1위 선정 기념

기아자동차가 4일 ‘착한기업지수’(GBI: Good Business Index) 조사에서 업계 1위에 선정된 것을 기념해 고객을 위한 ‘착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만 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이 모닝이나 레이, 프리미엄을 구매하면 10만 원을 할인 판매한다.

여성운전자 1000명 시대를 맞아 여성 고객에게는 차량 외관 깔끔한 일회용 비단 헌을 1000원을 제공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성한 여성운전자가 대상이며 출고 후 30일 이내여야 한다.

K시리즈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1회 다른 차종으로 교환해 주는 이벤트도 이달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한 달 동안 판매되는 전 차종의 차량 한 대당 1000원을 적립해 보육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최근 착한경영센터와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착한기업지수’에서 64.1점을 획득해 자동차 업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아시아나 약선요리 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인천국제공항 퍼스트클래스 라운지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이 고객들에게 새롭게 준비한 약선(藥膳) 요리를 서비스하고 있다. 약선 요리는 약재와 음식의 장점을 결합한 ‘힐링푸드’(Healing-Food)다.

7000만원 이하 소형주택 보유자 무주택 인정

민영주택 1순위 청약 가능

앞으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소형주택 보유자는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자서분양’도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원 주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영주권에 갈아하는 장기체류자들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출계약이나 이중계약, 차명계약, 건설사가 임직원이나 그 가족들에 미분양분을 반강제로 떠넘기는 일명 ‘자서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이,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보유한 사람은 청약가점제 상 무주택자로 인정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고 무주택 기간도 인정된다.

종전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로 인정해줬으나 이번에 주택가격을 2천만원 주가 상향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한 것이다. 바뀐 규정은 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동부, 대우일렉 인수 1380억 투자

계열사별 투자규모 확정

동부그룹이 4일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에 참여하는 계열사와 투자 규모를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그룹은 지난달 동부컨소시엄과 대우일렉 채권단이 대우일렉을 2726억 원에 인수하기로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당시 계열사별 투자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번에 확정된 동부 측의 투자 규모는 모두 1380억원이다.

이 중 계열사는 동부하이 тек 500억원, 동부CNI 150억원, 동부리아텍 50억원, 동부로봇 30억원, 동부동 50억원 등 780억 원을 투자한다.

여기에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이 대주주로서 250억원, 우호적 투자자인 삼동흥산과 빌텍이 각각 150억원과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산과 빌텍은 김 회장이 1989년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동곡사회복지단 산하 계열사다.

동부컨소시엄 관계자는 “차입을 하지 않고 사업 시너지가 큰 전자 분야 계열사를 중심으로 대우일렉을 인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외부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동부는 대우일렉 인수에 필요한 나머지 1346억원은 재무적 투자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참여가 확정된 재무적 투자자는 KTB네트워크와 SBI 등 두 곳으로 이들은 900~1000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는 이들과 5년 안에 기업공개(IPO)를 하고 연 수익률 8% 이상의

공모가를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협의 중이다. 나머지 436억원은 새로운 재무적 투자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불황 탄 세뱃돈

28% “작년보다 줄이겠다” 7% “늘리겠다”

아이들은 올해 세뱃돈이 작년보다 적거나 아예 없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전망이다.

4일 오픈마켓 11번가(wWW.11st.co.kr)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간 고객 3920명을 대상으로 자녀나 조카에게 주는 세뱃돈 액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줄이겠다’와 ‘아예 주지 않겠다’는 답이 각각 28%, 21%에 달했다. 지난해와 같게 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4%였으나 ‘지난해보다 늘리겠다’는 응답은 7%에 그쳤다.

11번가는 경기 불황의 여파가 세뱃돈 액수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꾹꾹 눌러뗐다. 설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설 용돈 액수를 조사한 결과 ‘10만~20만원’이 38%로 가장 많았지만 ‘여유가 되지 않아서 드리지 못한다’는 답변은 18%(2위)나 됐다.

‘20만~30만원’은 17%, ‘10만원 이하’는 15%, ‘30만~50만원’은 7%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53.21 (-4.58)	코스닥지수 501.32 (-1.99)	금리 (국고채 3년) 2.76% (0.00)	원·달러 환율 1084.60원 (-12.80)
-----------------------	----------------------	--------------------------	---------------------------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하나투어 광주/전남 전용 상품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세요~!

편안한 무안 출발 상품!

무안출발

꿈 같은 휴가, 대만!

2월 8일 금요일 [설날연휴] 3박 4일	선착순 20명	[CPFP01-C01]
대만 4일 아류/지우편 (드로미양스)	699,000원 ~	대만 3일 아류/지우편 (드로미양스)
*특전: 자본보험, 풍물리안 BBQ	*특전: 자수원, 온천, 애시당 강관	*특전: 자본보험, 풍물리안 BBQ
[CPFP01-C01]	899,000원 ~	[CPFP01-NX]
대만 4인 아류/화현/화원 (출발일정)	1,049,000원 ~	마카오/홍콩 4일, 5일
*특전: 자본보험, 풍물리안 BBQ	*특전: 자수원, 온천, 화현, 화원 여행객용품, 사과강 왕관	*무인카오/실헤론1호/홍콩(1-마카오)1호/무인

인천 출발 상품!

동남아

따뜻한 동남아에서의 휴양

[AAPF00-ZEC]	[APAP11-Z]	[AAPP10-ZC]
방콕/파티야 4일/5일 399,000원 ~	방콕/파티야 5일 499,000원 ~	방콕/파티야 5일 399,000원 ~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APAP11-Z]	[세계3대비치]보리카이 5일 499,000원 ~	[세계3대비치]보리카이 5일 499,000원 ~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특전: 3월 17, 18, 19, 24, 25, 26, 31일 (일부날짜 제외)
[ABP100]	2월 OPEN! 푸껫, 5, 6일 499,000원 ~	[ABP100]
*특전: 2월 14, 21, 23, 24, 28일 499,000원 ~	*특전: 2월 14, 21, 23, 24, 28일 499,000원 ~	*특전: 2월 14, 21, 23, 24, 28일 499,000원 ~
마카오/홍콩/심천 4일, 5일 999,000원 ~	마카오/홍콩/심천 4일, 5일 999,000원 ~	마카오/홍콩/심천 4일, 5일 999,000원 ~
*무인카오/실헤론1호/홍콩(1-마카오)1호/무인	*무인카오/실헤론1호/홍콩(1-마카오)1호/무인	*무인카오/실헤론1호/홍콩(1-마카오)1호/무인

광주/전남 기획상품

단독모객

기획상품 (호주)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지금 1순간 최고의 여행지! 일주차 뚝정행 ALL포함!	지금 1순간 최고의 여행지! 일주차 뚝정행 ALL포함!	지금 1순간 최고의 여행지! 일주차 뚝정행 ALL포함!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4,300,000원 ~ 3,990,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10일]
*특전: 광주·인천공항 수송, 국내		